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이 시 은[†]

이 재 창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Bartholomew 와 Horowitz(1991)의 애착유형 척도, Armsden 과 Greenberg(1987)의 부모·또래 애
착 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 Salovey, Mayer,
Goleman, Turvey 및 Palfai(1995)의 특질상위기분척도, King 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소외감, 또래
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 그리고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안정형은 몰두형 및 공포형과 정서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부형과는 정서
표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공포형의 또래애착은 정
서인식 및 표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거부형의 부모애착은 정서표현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몰두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 상담하는데 있어 애착과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애착유형, 부모·또래애착, 정서적 특성

* 이시은은 홍익대학교 강사임,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시 은, (130-861)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153번지 벽산아파트 102-404
전화 : 011-419-4222, E-mail : hiverai@hanmail.net

애착 이론에서는 초기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타인과 적절히 분화되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정서와 인지를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안정 애착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적응적인 자기 발달을 하게 된다. 이처럼 유아기 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의 본질과 청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간의 관계성에 대해 Bowlby (1973)는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내적실행모델이란 각 개인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으로,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내적실행모델은 상보적으로 발달하는 자기와 애착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 정서적으로 유용하고 탐색적 활동을 지지해 주는 부모의 실행 모델의 맥락에서 가치 있고 유능한 자기의 실행 모델이 형성되며, 애착 활동을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탐색활동을 방해하는 부모의 실행 모델의 맥락에서는 가치 없고 무능한 자기의 실행모델이 형성된다고 보았다(Sroufe & Fleeson, 1986). 특히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은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개인 자신에 대한 지각과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유형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Blehar, Water, & Wal, 1978; Bowlby, 1958; Main, Kaplan, & Casidy, 1985).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애착대상과의 애착 형성 요인을 밝히고, 애착유형을 분류하며,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영아의 애착유형을 확인하

고자 한 Ainsworth 등의 연구로부터 비롯된다 (장휘숙, 1998). 그 후, Hazan 과 Shaver(1987)는 애착과정을 이성에 대한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하고 유아에게 사용되어졌던 애착의 범주를 성인의 관계 영역에 적용하였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패턴이 실행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그것이 이성과의 관계 형성시 그대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영아기의 애착 패턴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인의 내적실행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인애착의 4유형을 제시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는 자기와 타인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 부정 표상을 구분하여 4가지 애착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초기 애착의 특성은 나중의 동료와 다른 성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반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기에 더욱 확고해지거나 수정, 변형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자율성 추구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며 가족 외의 관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추구로 인해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감소된다.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까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심지어 성인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는 애착인물로 활용된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인한 자율성 추구는 또한 애착인물로 동료를 활용하는 건강한 압력을 만들어 낸다. 즉, 동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동안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활용된다(Allen & Land, 1999; Allen

et al., 1994; Bowlby, 1988; Fraley & Davis, 1997; Steinberg, 1990).

청소년기의 관계 양상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애착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청소년기 애착에 대한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청년기의 시작과 함께 개인의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므로 또래에 대한 애착은 커지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된다는 것이다(Steinberg & Silverberg, 1986),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유대가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 Bretherton 과 Weiss는 비록 아동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애착 행동은 감소하지만,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이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였다(장휘숙, 1997). 장휘숙(1997) 역시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또래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McCormick & Kennedy, 1994; Paterson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실행모델의 재확립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내적실행모델을 측정하기 위해 내적실행모델에 초점을 맞춰 개개인이 자기와 타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긍정, 부정 표상에 의해 유형화한 Bartholomew 와 Horowitz의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애착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애착유형간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애착유형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부모 및 또래애착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애착은 관계적 특성에 많은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애착조직(attachment

organization)과 그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유아의 애착은 생존하기 위해 애착 인물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애착조직 또한 애착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자기의 내적실행모델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면서 생겨나는 강력한 정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의 애착 조직의 일부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내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일부분은 청소년의 주요 애착 인물의 현재 행동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된 반응 세트를 반영하는 것이다(Allen & Land, 1999; Main & Hesse, 1990; Main & Solomon, 1986). 즉, 애착 관계에서 중심 기능은 정서적 안정기저를 제공받는 것인데, 유아들에게 있어 정서적 안정기저는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 기저의 핵심은 그들이 자율적인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생겨나는 광범위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업에 몰두하며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지내던 과거와 달리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새로이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은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애착을 이해하려면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특성에 맞춰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애착유형과 정서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애착 유형에 따라 개개인이 분노, 질투, 우울증과 같은 구체적인 정서 경험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대처하고 조절하는 지에 관련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rennan & Shaver 1995; Mikulincer, 1998; Sharpsteen & Kirkpatrick, 1997; Zuroff & Fitzpatrick, 1995). 대

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를 기쁨-슬픔 차원, 각성-침착 차원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정서와 인지적인 사고를 통해 반응적인 수준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위기분으로서의 정서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애착유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구체적인 정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상위기분으로서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위기분 경험은 기분의 직접적 지각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정서 자체 뿐 아니라 정서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Mayer & Gaschke, 1988; Mayer, Mamborg, & Volanth, 1988; Mayer & Salovey, 1990, 1993; Mayer & Stevens, 1994).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자신의 주의 자원을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정서의 지속시간 등에 돌음으로써 정서의 파생적인 영향력을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김미경, 1998).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게 되면,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에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하게 된다(이은순 외, 1998). 즉, 상위기분으로서의 정서에 대한 인식은 정서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가족 내에서 제 때에 적절하게 유쾌한 혹은 불쾌한 정서를 표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그 정서가 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적절한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등을 키움으로써 건강한 정서발달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갖게 된다(김송자, 2002).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른 상위기분으로서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을 이해한다면, 내담자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내담자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애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정서인식 및 표현이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내담자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보적인 발달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 실행모델을 수정·재통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애착유형에 따라 부모·또래 애착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인식·표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애착유형별 부모·또래애착과 정서인식·표현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93명(30.2%), 여학생은 215명(69.8%)이었다. 평균연령은 21.29세(표준편차 2.62)이며, 학년은 1학년은 4명(1.3%), 2학년은 177명(57.5%), 3학년은 76명(24.7%), 4학년은 51명(16.6%)이었다.

연구 도구

애착유형 척도

Bartholomew 와 Horowitz(1991)의 애착유형 척도는 김동직과 한성열(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공포형의 애착 양식 각각에 해당하는 4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유형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다음, 4개의 진술문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갖고 있는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거부형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이다. 자기부정, 타인공정의 표상을 갖고 있는 몰두형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공포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려는 유형이다.

부모·또래 애착 검사

Armsden 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의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 IPPA-R)을 옥 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또래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으로는 부모/또래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

하는 의사소통,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또래 반응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상호 신뢰, 부모/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혹은 부모/또래를 향한 분노를 측정하는 소외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애착 점수는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으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부모 애착은 .92, 또래 애착은 .90으로 나타났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Salovey, Mayer, Goleman, Turvey 및 Palfai(1995)에 의해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번안판을 토대로 옥수정(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이 검사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차원 13문항,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료성 차원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선 믿음 차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정서 표현 질문지(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

King 과 Emmons(1990)이 개발한 정서 표현 질문지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옥수정(20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의 7점 척도인 이 검사는 긍정적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7문항, 부정적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4문항, 친밀감 표현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 합

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결 과

애착유형에 따른 부모·또래 애착의 차이

애착유형에 따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부모애착 ($F=2.78, p<.05$)과 또래애착($F=9.11, p<.001$)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 검증 결과, 또래애착에서 안정형은 나머지 세 가지의 불안정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에서는 소외감 영역에서만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2.90, p<.05$)를 보였

표 1. 애착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또래애착의 차이 분석

구 분	안정형 (<i>n</i> =125)	거부형 (<i>n</i> =32)	몰두형 (<i>n</i> =98)	공포형 (<i>n</i> =53)	<i>F</i>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의사소통	36.04 (6.21)	35.09 (5.69)	33.83 (6.26)	34.41 (7.32)	2.33	
	상호신뢰	38.76 (5.44)	37.50 (5.92)	36.52 (6.34)	37.49 (6.45)	2.62	
	소외감	11.72 (2.52)	12.40 (2.94)	12.42 (2.88)	13.01 (3.35)	2.90*	
	부모애착 합	63.08 (12.88)	60.18 (13.41)	57.92 (14.13)	58.88 (15.99)	2.78*	
또래 애착	의사소통	34.11 (4.39)	32.12 (5.04)	33.00 (4.82)	31.67 (5.23)	3.92**	안정형>공포형
	상호신뢰	36.65 (4.42)	33.75 (5.45)	34.28 (4.77)	34.01 (5.29)	7.03***	안정형>거부형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소외감	15.74 (3.06)	17.65 (3.64)	18.11 (2.70)	18.28 (3.38)	14.56***	안정형<거부형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또래애착 합	55.02 (10.06)	48.21 (12.65)	49.17 (10.85)	47.41 (11.95)	9.11***	안정형>거부형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 $p<.05$ ** $p<.01$ *** $p<.001$

으나, 또래와의 애착에서는 세 가지 하위영역인 의사소통($F=3.92, p<.01$), 상호신뢰($F=7.03, p<.001$), 소외감 영역($F=14.56,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또래와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안정형이 공포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신뢰 영역에서는 안정형이 나머지 세 가지 애착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또래로부터 소외감 영역에서는 안정형이 나머지 세 가지 애착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인식 · 표현의 차이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인식($F=6.06, p<.01$)과 정서표현($F=4.74, p<.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정서인식에서 안정형은 몰두형 및 공포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표현에서 안정형은 거부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

표 2.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인식 · 정서표현의 차이 분석

구 분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공포형	F	Scheffe	
	(n=125)	(n=32)	(n=98)	(n=5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식	주의	47.24 (5.73)	44.43 (4.99)	46.36 (5.62)	46.37 (5.16)	2.25	
	명료성	37.07 (5.71)	35.31 (6.03)	33.53 (4.66)	34.05 (6.37)	8.40***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개선믿음	21.80 (3.34)	21.00 (3.58)	21.01 (3.94)	20.00 (4.27)	3.02*	안정형>공포형
	정서인식 합	106.12 (10.84)	100.75 (11.20)	100.90 (10.63)	100.43 (11.20)	6.06**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16.18 (4.56)	16.00 (4.89)	16.25 (4.76)	16.58 (5.45)	.12	
	긍정적 정서표현	33.80 (6.28)	29.75 (4.77)	31.57 (6.37)	32.49 (6.67)	4.58**	안정형>거부형
	친밀감 표현	23.62 (4.23)	20.37 (5.01)	21.62 (3.86)	21.09 (5.17)	7.93***	안정형>거부형 안정형>몰두형 안정형>공포형
	정서표현 합	73.60 (11.30)	66.12 (10.73)	69.44 (10.86)	70.16 (13.34)	4.74**	안정형>거부형

* $p<.05$ ** $p<.01$ *** $p<.001$

별로 살펴보면, 정서에 대한 명료성은 안정형이 몰두형 및 공포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정서에 대한 개선믿음은 안정형이 공포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있어서는 안정형이 거부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친밀감의 표현에서는 안정형이 나머지 세 가지 애착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애착 유형별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

안정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

안정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 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안정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r=.46, 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는 반면, 정서표현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또래애착은 정서인식($r=.59, p<.001$)과 정서표현($r=.19, p<.05$)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의 모든 하위영역은 부모 및 또래애착의 모든 하위 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정서표현에서는 친밀감의 표현만이 부모 및 또래애착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거부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

거부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거부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정서표현($r=.48, p<.01$)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래애착은 정서인식($r=.70,$

표 3. 안정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의 상관분석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인식 합	정서표현 합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친밀감 표현		
부 모 애 착	의사소통	.45***	.19*	.31***	-.03	.20*	.23**	.44***	.19*
	상호신뢰	.39***	.15	.27**	-.12	.09	.08	.37***	.03
	소외감	-.32***	-.31***	-.35***	.00	-.16	-.32***	-.44***	-.20*
또 래 애 착	의사소통	.36***	.36***	.25**	.18*	.13	.30***	.46***	.26**
	상호신뢰	.41***	.37***	.31***	.02	.09	.26**	.51***	.16
	소외감	-.21*	-.40***	-.24**	.07	.62	-.25**	-.40***	-.03
부모애착 합		.44***	.22*	.34***	-.69	.17	.21*	.46***	.14
또래애착 합		.40***	.44***	.32***	.68	.08	.32***	.59***	.19*

* $p<.05$ ** $p<.01$ *** $p<.001$

표 4. 거부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의 상관분석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인식 합	정서표현 합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친밀감 표현		
부 모 애 착	의사소통	-.03	.00	.24	.28	.36*	.43*	.06	.49**
	상호신뢰	.02	.11	.02	.26	.26	.31	.08	.38*
	소외감	-.10	-.05	-.29	-.22	-.29	-.55**	-.17	-.49**
또 래 애 착	의사소통	.56**	.37*	.41*	.18	.32	.55**	.58***	.48**
	상호신뢰	.57**	.50**	.42*	-.01	.28	.59***	.66***	.39*
	소외감	-.49**	-.52**	-.37*	.26	.05	-.53**	-.62***	-.10
부모애착 합		.01	.06	.18	.28	.33	.44*	.10	.48**
또래애착 합		.61***	.51**	.46**	-.01	.23	.62***	.70***	.39*

* $p < .05$ ** $p < .01$ *** $p < .001$

$p < .001$)과 정서표현($r = .39, p < .05$)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의 모든 하위영역은 부모애착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또래애착의 모든 하위영역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표현에서는 친밀감의 표현만이 부모 및 또래애착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몰두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

몰두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몰두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r = .29,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정서표현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래애착은 정서인식($r = .41, p < .001$)과 정서표현($r = .32, p < .01$)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정서인식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와 개선 믿음은 부모 및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명료성은 또래애착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정서표현에서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친밀감 표현이 또래애착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포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

공포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포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또래애착은 정서인식($r = .40, p < .01$)과 정서표현($r = .55, p < .001$)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를 부모 및 또래애착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정서에 대한 개선 믿

표 5. 몰두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의 상관분석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인식 합	정서표현 합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친밀감 표현		
부 모 애 착	의사소통	.21*	.15	.20*	-.05	.08	.06	.25*	.05
	상호신뢰	.26**	.16	.26**	-.07	.07	.07	.31**	.03
	소외감	-.14	-.13	-.14	-.01	-.13	-.14	-.18	-.13
또 래 애 착	의사소통	.26**	.15	.29**	.11	.35***	.29**	.31**	.36***
	상호신뢰	.33**	.22*	.41***	.07	.38***	.15	.42***	.31**
	소외감	-.15	-.31**	-.31**	-.02	-.09	-.09	-.33**	-.10
부모애착 합		.24*	.16	.24*	-.05	.10	.09	.29**	.06
또래애착 합		.30**	.24*	.39***	.09	.35***	.22*	.41***	.32**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공포형의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의 상관분석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인식 합	정서표현 합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	친밀감 표현		
부 모 애 착	의사소통	-.15	.17	.44**	-.07	.27*	.31*	.20	.25
	상호신뢰	-.14	.12	.39**	-.03	.33*	.24	.15	.24
	소외감	.22	-.07	-.41**	.02	-.10	-.25	-.09	-.14
또 래 애 착	의사소통	.12	.35**	.25	.34*	.49***	.47***	.35**	.57***
	상호신뢰	.18	.31*	.21	.34*	.48***	.45**	.34*	.55***
	소외감	.05	-.32*	-.40**	-.03	-.18	-.22	-.31*	-.19
부모애착 합		-.17	.14	.44**	-.02	.28*	.29*	.17	.24
또래애착 합		.12	.39**	.31*	.31*	.48***	.47***	.40**	.55***

* $p < .05$ ** $p < .01$ *** $p < .001$

음은 부모 및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명료성은 또래애착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표현

에서는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친밀감 표현이 부모 및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또래애착과만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인식·표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유형에 따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보았을 때 부모로부터의 소외감과 또래로부터의 의사소통, 상호신뢰, 소외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부모로부터의 소외감과 또래와의 전반적인 애착 수준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또래에 대해 높은 애착을 보인다는 Raja 등(1992)의 연구결과와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사람이 또래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던 장휘숙(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친구, 이성 친구,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일차적 애착 인물로 가장 선호하며,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 가장 절친한 친구를 일차적 애착 인물로 선호한다는 Freeman 과 Brown(2001)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이렇게 불일치되는 연구 결과는 부모는 좀 더 전반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또래 관계는 구체적으로 기능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Lempers와 Clark-Lempers (1992)의

연구결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 애착은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면, 또래애착은 부모와의 애착을 토대로 형성되며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둘째, 안정 애착유형과 비교했을 때, 거부형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몰두형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료화하지 못하고, 공포형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료화하지 못하며 정서에 대한 개선 믿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Searle와 Meara(1999)의 연구결과와 Swinkels와 Giuliano(1995)의 연구결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Searle 와 Meara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은 낮은 정서 강도와 정서에 대한 주의집중과 관련되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은 높은 정서의 표현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Swinkels 와 Giuliano 는 주의 과정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런 경향이 너무 강할 때 불안이 증가하고 반추 경향성이 높아지며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명료성은 외향성과 높은 자존심과 관련되며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좀 더 적응적인 조절양식을 택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거부형의 긍정적인 표현이 적음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몰두형과 거부형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료화하지 못함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정서적 혼란에 그 원인이 있음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친밀감의 표현은 안정형과 나머지 세 가지 불안정 애착유형을 구분해주는 유용한

지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의 표현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다는 한정원(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관계에 있어 어떤 상이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애착유형별 부모·또래 애착과 정서인식·표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와 관련한 부모와 또래 애착의 특성과 이에 따른 상담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정형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모두 정서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서표현 중 친밀감의 표현과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정형의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또래와의 애착관계의 정서적 특성이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Bowlby(1973)가 말했던 내적실행모델의 개념이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정서인식을 바탕으로 한 부모와의 친밀감 표현은 안정애착 형성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부모애착의 경험은 또래와의 애착관계에도 지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거부형의 경우, 또래애착에 있어서는 안정형과 유사하게 정서인식과 친밀감의 정서표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애착은 친밀감의 표현과만 관련된다는 점에서 안정형과 차

이가 있었다. 거부형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인식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거부형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서교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Kemp와 Neimeyer (1999)는 거부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통에 대한 경험과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인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감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부형의 내담자에게는 안전하고 수용받는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이완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정서 경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eenberg, Rice, & Elliott, 1993).

몰두형의 부모애착은 정서인식 영역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개선믿음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표현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은 정서인식과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표현 영역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표현과 친밀감의 표현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몰두형의 경우 또래애착이 긍정적 정서표현과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애착이 정서에 대한 명료성 및 친밀감의 정서표현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형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몰두형은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여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여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과도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특히, 몰두형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매개해주는 정서에 대한 명료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몰두형의 내담자는 어떤 정서가 그들의 경험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지를 탐색하도록 도와 주고, 공감을 통해 그들 자신의 정서 경험에 주의집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자기 위로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earle & Meara, 1999).

공포형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또래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포형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정서인식과 표현 차원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또래와의 관계에 몰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대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서를 표현하므로 또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는 본 연구의 애착유형별 부모 및 또래애착의 차이 검증 결과에서도 공포형이 안정형에 비해 또래와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Searle와 Meara(1999)는 공포형의 사람들은 의존적인 성향이 있으나 표현을 적게 하므로 감정을 인식하는데 어려워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기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공포형의 내담자들은 정서인식과 표현을 기반으로 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애착유형 분류는 피험자의 자기보고에 의해 네 가지 문항 중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 방식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피험자의 반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애착유형 분류를 위한 검사 개발 및 측정 방법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 표집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애착 유형별로 비교하는데 있어 일부 유형은 다소 표집 인원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 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수준을 알아보고 비교하는데 그쳤는데, 청소년들의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관계에 있어 변화가 생기며 내적실행모델이 수정·재통합되는 발달상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다중 애착 인물이 어떻게 하나의 내적실행모델로 통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된 대학생들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은 정서표현 중 친밀감의 표현과만 관련성이 있고, 긍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애착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관계지향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분명치 않다. Komiya 등(2000)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문화권에서는 정서의 통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정서표현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란 그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과 관련되는 요소이므로, 애착과 정서표현과의 관련성 연구는 타 문화권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애착이란 관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그 특성 및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애착관계와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형성 요인 및 과정,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를 규명하고 애착관계와 일반적인 대인관계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내담자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미경 (1998). 정서주의력, 정서인식의 명확성,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가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자 (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은순 외 (1998). 청년기와 정서. 학문사.
-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장휘숙 (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학지사.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35-552.
- Allen, J.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3-31.
- Fraley, R. C., & Davis, K. E. (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131-144.
- Freeman, H., & Brown,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653-674.
- Greenberg, L. S., Rice, L. N., & Elliott, R. (1993). *Facilitating emotional change: The moment-by-moment process*. New York: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emp, M. A., & Neimeyer, G. J. (1999) Interpersonal attachment: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8-394.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empers, J. D., & Clark-Lempers, D. S. (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 comparisons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54-96.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T.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161-18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Bretherton, I., & Waters, E.(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4.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 new,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T. B. Brazelton & M. Yogman(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pp. 95-124). Norwood, NJ: Ablex.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19-132.
- Mayer, J. D., Mamborg, M., & Volanth, A. J. (1988). Cognitive domains of the mood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53-486.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4), 433-442.
-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351-373.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7.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79-600.
- Raja, S.N., McGee, R., & Stanton, W.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21, 471-485.
- Salovey, P., Mayer, J. D., Goleman, S. L., Turn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f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158.
- Sharpsteen, D. J., & Kirkpatrick, L. A. (1997). Romantic jealousy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27-640.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Hillsdale, NJ: Erlbaum.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 Silverberg, S. E.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Attention directed toward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 Zuroff, D. C., & Fitzpatrick, D. K. (1995). Depressive personality styles: Implications for adult attach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253-265.

원고접수일 : 2005.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4

게재결정일 : 2005. 11. 5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tyle, Parent-Peer Attachment,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Si-Eun Lee

Jae-Chang Lee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tyle,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08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instruments included: (a) Attachment Style (Bartholomew & Horowitz, 1991), (b)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Armsden & Greenberg, 1987), (c) Trait Meta-Mood Scale (Salovey, Mayer, Goleman, Turvey & Palfai, 1995), and (d)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ing & Emmons, 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lienation from parent, trust with peer, communication with peer, and alienation from peer on attachment style. Second, secure attachment sty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both preoccupied attachment style and fearful attachment style on emotional awareness, and secure attachment styl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dismissing attachment style on emotional expressiveness. Third, peer attachment of dismissing attachment style, preoccupied attachment style, and fearful attachment style was correlated with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veness. On the other hand, dismissing attachment style's parental attachment was correlated with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eoccupied attachment style's parental attachment was correlated with emotional awareness. The study findings help counselors to better understand attachment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ttachment style,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otional characteristics